光州日報

광주 -6/6℃ 목포 -3/5℃ 여수 -2/6℃

단기 4342년 (음력 11월 14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61호 1판 2009년 12월 29일 화요일

"금호 무너지면 지역경제 큰 일"

시민단체, 풋백옵션 연장 촉구 등 금호 살리기 여론 확산

호남지역 유일의 10대 그룹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권을 내놓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가운데 금호를 살리자는 지역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YMCA·YWCA, 경실련 등 광주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8일 '금호그룹 회생의 길'이란 성명을 내고 정부와 금호의 주채권단인 산업은행 측에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채권단에 의한 풋백옵션 행사 기한이 20여일 후로 다가오면서 그룹 경영권 위기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그룹이 해체되거나 그룹 경영권이 채권단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광주경제는 그동안 몇몇 유수의 기업들이 부도로 해산되는 등 엄청난 상처를 입었는데 금호마저 해체되거나 회생불능 상태에 빠지면 지역경제는 물론 국민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금호사태가 끼칠 광주·전남 지역경제와 사회의 충격을 고려해 적극적인 그룹 안정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풋백옵션 기한 연장 등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와 함께 금호 측에도 위기극복을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혁신을 이루고 책임경영과 윤리경영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경제살리기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전남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금호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단체는 금호가 타이어·고속·석유화학 등 계열사를 통해 1만3천여명의 지역인재를 고용하고, 연간 3조 8천억원의 매출을 올려 지방세로만 5890억원을 납부하는 등 지역경제에 대한 공헌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270여 개 지역 협력업체에 연간 1천730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비엔날레 창설과 광주국제공연예술제·상무축구단·지역 대학 후원 등 문화예술 창달과 인재육성에도 앞장서 왔다고 덧붙였다.

광주경제살리기운동본부 이상걸 단장은 "경제기반에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축에 속하는 이 지역의 대표기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지역민들이 힘을 불어 넣어줄 때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역 기독교 선교단체인 '크리스천 프리네트워크'도 지난 22일 '호남의 마지막 기업, 금호아시아나를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지역민 3만 명의 서명을 담은 호소문을 산업은행 측에 전달했다. 〈본보 23일자 1면 보도〉

이런 가운데 "정부가 호남 기업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소문까지 지역 사회에 빠르게 퍼지는 등 민심이 악화하고 있어 금호 문제의 조속 해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금호는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 인수 당시 재무자 투자자에 약속한 풋백옵션 문제(4조 원)로 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주요 계열사 출자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어 그룹 경영권 상실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삼성전자, 광주에 1,400억 투자

정밀금형개발센터 건립…내년말 본격 가동

삼성전자가 광주에 1천400억원을 신규 투자해 정밀금형개발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광주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첨단가전 산업과 금형산업의 첨단기술 및 디자인 연구개발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오전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홍창완 삼성광주전자 대표이사는 정밀금형개발센터 건립을 골자로 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삼성전자 정밀금형개발센터는 첨단산업단지 삼성광주전자 3공장 내 부지 1만6천529㎡에 들어서며, 2010년 말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이 센터는 TV, 생활가전, 프린터 등에 적용될 대형 금형을 개발·생산하는 것은 물론, 디자인 차별화, 신규 제품 개발 기간 단축, 협력사 기술 및 생산성 혁신 등을 추진하게 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금형기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 센터를 통해 전반적인 제조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신규 투자는 국내 굴지의 대그룹인 삼성전자가 가전제품과 관련 연구개발기관을 신축한다는 점에서 과거 단순한 생산공장 이전이나 확장 등과는 구분된다.

이를 계기로 삼성광주전자가 가전제품 금형과 관련 독보적인 첨단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됐으며, 제품의 국제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는 것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기술력 향상 및 영업이익 증대, 지역수출 증대 등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가 지난 2004년 삼성 수원공장의 세탁기와 에어컨 등 백색 가전라인 광주 이전 당시 삼성이전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하고, 2005년에는 광산구 흑석 4거리에서 광산 나들목까지의 도로를 '삼성로'로 지정하는 등 친기업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이번 삼성전자 신규 투자의 밑거름이 됐다.

이날 박광태 시장은 "광주를 믿고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해준 삼성전자에 감사하며, 삼성전자가 초일류기업의 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광주시민과 함께 성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부서와 유관기관과의 총체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의 발굴·유치·실투자에 이르는 맞춤형 기업유치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내일·모레 또 눈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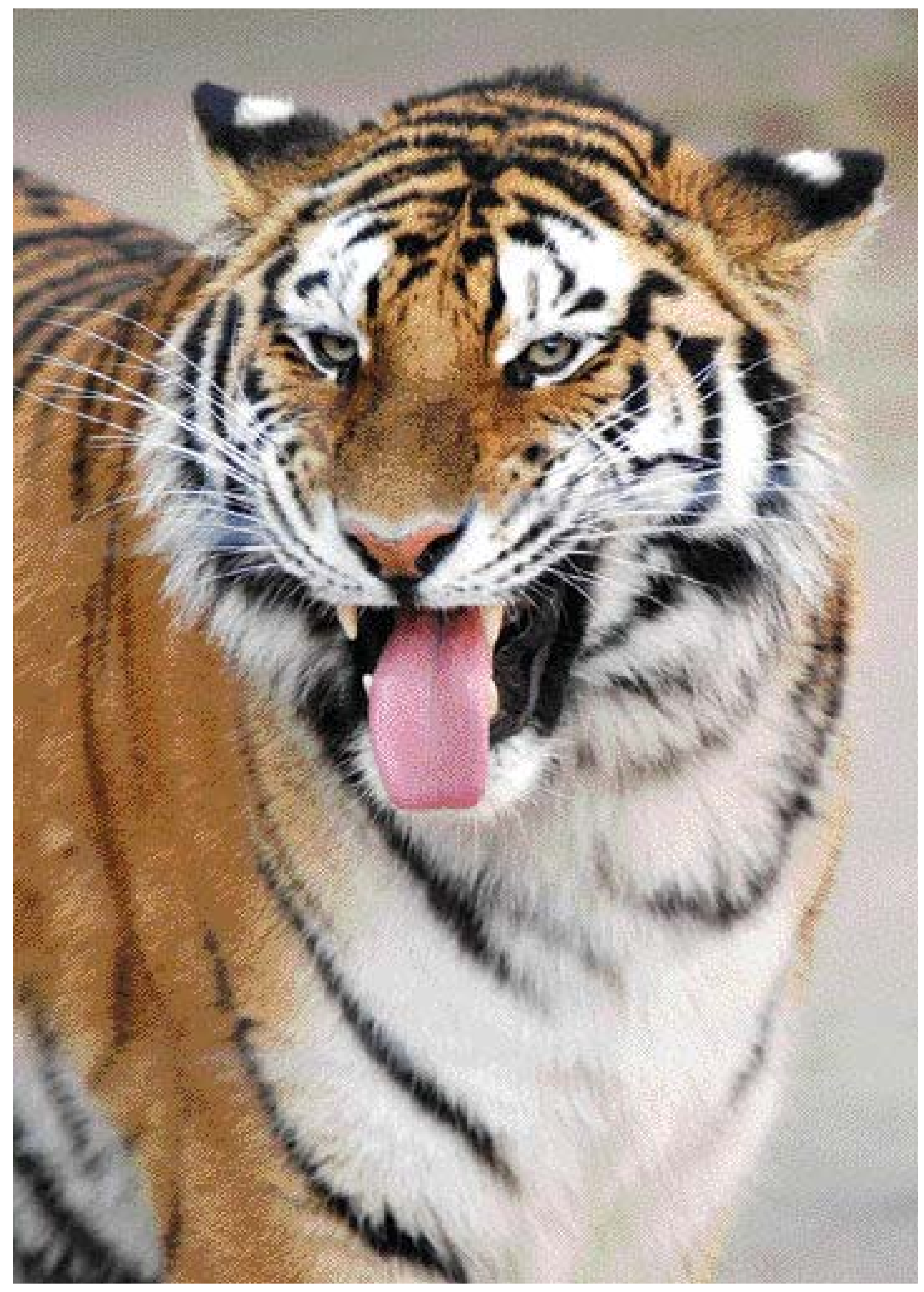
30일부터 31일까지 광주·전남에 눈이 내리겠으며, 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인년 첫날인 1월 1일은 구름이 다소 많이 낄 것으로 예상돼, 곳에 따라 해돋이를 관측할 수 없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0일 오후부터 광주·전남지역에 눈이 내리겠으며, 눈은 31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28일 예보했다.

30일 예상 적설량은 영광, 함평 등 서해안 지역은 2~5㎝, 그 밖의 지역은 1~3㎝. 1월 1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상돼, 곳에 따라 해돋이 관측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어흥! 경인년아 내가 간다

28일 광주시 북구 생룡동 우치동물원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시베리아 호랑이가 우렁차게 포효하고 있다. 내년에는 시베리아 벌판을 호령했던 호랑이의 용맹스러운 기세처럼 지역민 모두가 어깨를 활짝 펴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내년 '동북아 사이언스 파크'로 전남 F1 성공개최·투자유치 등 주력

광주시장·전남지사 송년 회견

광주시가 내년으로 예정된 광주 R&D(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맞춰 광주를 '동북아 사이언스 파크'로 자리매김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전남도는 F1대회 성공개최와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 가용자원의 산업화에 전력을 기울인다. 〈관련기사 3면〉

박광태 광주시장은 28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광주 R&D특구지정을 계기로 첨단과학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동북아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광역경제권 연구 거점화사업, 선도 중소기업 육성, 인력양성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며 "내년 1월에는 R&D특구 지정 및 지원본부가 설립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시장은 내년 주요 사업으로 ▲범국민적 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 구성 ▲돔구장과 문화시설을 갖춘 '스포츠·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 ▲광주와 인접도시인 화순, 나주 등을 교통망으로 연결하는 '신(新)광주 메트로폴리탄' 구상을 꼽았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 룸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는 F1대회의 성공 개최와 전남이 가진 비교우위 자원을 산업화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내년 도정의 우선 목표를 ▲비교우위 자산을 활용한 산업화 ▲미래산업 기반 마련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및 성공개최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F1 조직위 사무처는 전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 F1 대회 운영법인인 카보 등과 함께 협의를 통해 내실있게 꾸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영기·최권일 기자 penfoot@